

창작·교육·교류...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세계를 향하다

<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

30일 정식 개관...6월 29일까지 개관기념전
'디지털 공명' 주제...국내외 작가 21개팀 참여
전시실·퓨처랩·텔레포트 라운지 등 갖춰



가수 하림과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협업한 '좋은 날, 좋은 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오는 30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오픈한다. 28일 미리 공개된 개관 기념전 '디지털 공명'전에서 만나는 로렌스 렉의 작품 '노텔(Nøtel)'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는 2014년 12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래 꾸준히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중심 중 하나가 미디어아트의 상징적인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맵 Gwangju Media Art Platform)이다. 지난 2019년 11월 착공, 오는 3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GMAP의 공간과 개관 기념전을 28일 미리 둘러봤다. GMAP은 광주시립미술관이 분관 형태로 운영한다.

◇세계 연결하는 미디어아트 허브 지향
광주천변에 맞닿아 있는 GMAP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물 외곽의 대형 미디어파사드(가로 53.8mX 8.45m)가 눈길을 끈다. GMAP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창작자와 전시, 교육 및 교류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민-예술가-창의인력이 만드는 미디어 아트 문화 공간, 예술·기술·산업이 융합하는 미디어아트 창의 공간, 전 세계 창의도시를 연결하는 교류 공간 등 세계를 향한 미디어 아트 허브 등을 지향한다.

다. 개관 후에는 당분간 전시에 주력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미디어아트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GMAP은 시립미술관 임종영 학예관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연구사, 수습연구사, 일반직 등 모두 7명이 운영인력으로 참여한다. 한 해 운영 예산은 23억원이다.

◇게임처럼 즐기고, 참여하는 전시

가수 하림과 발달 장애 예술인들이 협업한 작품 '좋은 날, 좋은 밤'은 벽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속속 바뀌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인간 기계와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노진아 작가의 '데미스, 버려진 AI' 작품이다. 글로벌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가상의 호텔을 만나는 로렌스 렉의 멀티미디어 작품 '노텔(Nøtel)'은 세계 최고의 특급 호텔이라는 설정 아래, 게임 컨트롤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각종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

개관 기념전 '디지털 공명'전(6월 29일까지)은 국내외 21개 작가(팀)이 참여해 2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품들은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할 미래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AI, VR, 로봇, 인터랙티브 아트,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등 몰입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는 이승아, 김정연 게스트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했다.

1층 '현재 상황'에서는 인류 공통의 위기 상황과 당면

과제들을 예술작품으로 만났다. 김안나의 '오션 머신'은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해양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발명품이 등장한다. 마크 리의 '나의 집이었던 곳'은 관객이 직접 구글 어스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시엔유의 '변화 없는 변화'는 관객과 로봇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되는 작품이다.

2층 '퓨처 데이즈'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종과 생태, 로봇, 인공지능, 가상공간 등 기술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라파엘 로자노-헤라의 '기록된 기관(器官)'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마치 '전자방명록'을 작성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주며 박상화의 비디오 조각 '이너드립 하우스'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에 예술적 상상을 더한 디지털 상상화이자 초현실적 풍경화를 연출한다.

3층 '자연과 인간, 기계의 공명'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술과 기술의 공존을 실험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권두영의 '이상한·5·18'은 5·18의 사건과 일화들을 추상화하고 공간 안에 재현한 작품이며 사사 스페찰의 '흘린 눈물의 도서관'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담은 눈물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모아 만든 눈물 저장소다. 3층 전시는 내년 3월29일까지 1년간 계속된다.

한편 30일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전시에 참여한 퀘백 예술가들과 뮤텍(MUTEK) 페스티벌 팀이 참여하는 스페셜 포럼 '퀘백 포커스: 퀘백의 미디어 아트'가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관.

박광구 광주미협 회장 취임식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미술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린다. 광주미술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박광구(사진) 광주미술협회 제1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될 박 회장은 조선대 미술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문화예술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지냈으며 광주파인아트포럼대표, (사)전국조각가협회, 백학조각가회, 남도조각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영부 예대음으로부터 4년간 지원받은 1억원의 후원금을 토대로 협회소속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 우수 작가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또 5개 구청과 연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확대, 광주아트페어 재수탁 추진, 글로벌비즈니스 온라인 작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 공약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화동행' 31일 사업설명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문화예술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문화예술 기부금 매칭 지원'(매칭 지원)사업인 광주 문화매세나가 본격 추진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문화매세나 '문화동행'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만세만세 만만개 매칭펀드 프로젝트'로 소액 지원했던 매칭사업을 확대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사업은 지역 예술인(단체) 대상 시각, 공연, 문학 분야 활동 경력 10년 기준으로 신진·청년 작가와 전문·중견 작가로 구분한다.

기부금 대 매칭금 비율(1:2 / 1:1)로 차등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최대 1억원까지 매칭한다. 예를 들어 활동 경력 10년 미만인 신진·청년 예술인(단체)은 최소 기부금액인 300만원을 받으면 매칭비를 따라 600만원을 매칭·지원하고, 10년 이상 전문·중견 시각분야 예술인(단체)은 최소 500만원을 받으면 500만원을 매칭·지원한다. 단 전문·중견 공연 기부금 최소기준은 1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했다.

공모는 오는 4월 22일(오후 5시)까지이며 온라인(gjcf576@naver.com) 접수만 받는다. 문의 062-670-5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결판여고 연극반 '빨강 머리 앤'을 공연하다

창작 뮤지컬 '앤(ANNE)' 공연 4월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캐나다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강 머리 앤'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앤(ANNE)'(사진)이 오는 4월 2일 오후 3시와 7시30분 두 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빨강 머리 앤'은 소설의 인기로 합입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각색되며 세대를 불문한 전 세계적인 '앤 신드롬'을 이끌었다.

뮤지컬 '앤(ANNE)'은 독창적이고 신선함을 바탕으로 결판여고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오가며 만들어내는 감동과 사랑의 순간을 전한다.

작품의 배경은 '결판여고 연극반'이다. 결판여고 연

극반이 결성되면서 공연할 작품으로 '빨강 머리 앤'이 선정된다. 결판여고 연극반 학생들과 선생님은 어떻게 앤은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고민하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감동과 사랑의 순간을 그린다.

특히 어린 소녀 앤이 멋지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시기별로 3명의 배우가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작품은 '앤'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온 20~40대 여성 관객을 주요 관객으로 하는 동시에 처음 관람하는 남녀노소 관객 모두에게도 어린 시절 발랄하던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오늘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 2만원이며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현대적 감성과 서정성을 손글씨로 엮어

김종 시조집 '물의 나라에서 보낸 하루' 펴내

"나는 언제쯤 뽕이 먹기를 그만 두고 투명누에로 쉼에 오르나. 뽕잎만 탐하고 비단짜기는 등한한 이날까지의 나는 고지 갖지 않고 빈 물레만 돌리는 누에가 아니었으랴. 뽕잎에서 다시금실뭉치를 뽑는다. 지구를 온통 시조비단으로 감아내고 싶어서."

광주문인협회장을 역임한 김종 시인이 신작 시조집 '물의 나라에서 보낸 하루'(책만드는집)를 펴냈다.

직접 쓴 손글씨로 엮어낸 작품집은 시인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담겨 있어 보는 맛도 쏠쏠하다. "뽕잎에서 실뭉치를 뽑는다"라는 '시인의 말'에서 보듯 한 땀 한 땀 시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조집에는 '물저장나무 소식', '씨앗의 시간', '허공 흔적', '달개비 풍경', '정춘', '지구라 깎박이' 등 모두 5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작품은 고전 형식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 감성과 서정성을 토대로 주제 의식을 담아낸다.

"무지개가 꽃인 것을 오늘 알았다/ 한 발 한 발 좁혀든 참 신비한 구석 자리가/ 한 아름 햇빛에 웃는 별자리를 띄우더니/ 뚝 뚝 하늘에서 눈물을 받아내고/ 맑은 얼굴 옮겨다가 하늘하늘 수초 되고/ 그 수초 허리를 내어 강물을 휘감았다..."

표제시 '물의 나라에서 보낸 하루'는 자연에 대한 관조,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특유의 서정적 이미지와 심상을 환기한다.

한편 유성호 평론가는 "시인은 자신의 기원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시간을 노래함으로써 그것을 상상적으로 치유하는 제의 과정도 함께 치르고 있다"고 평한다.

김종 시인은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조선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다. 시집 '장미원', '독도 우체통' 등과 저서 '전환기의 한국현대문학사', '삼별초, 그 황홀한 왕국을 찾아서' 등을 펴냈으며 영란문학대상, 한국가사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